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김학배 안젤로
 사목회장 : 유인웅 다 윗 오일공-오파오-칠육삼팔
 이범준 요 셉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사무장 : 주정희 마리아 육오공-육칠팔-일이삼오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2026년 공동체 사목방향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자] 사순 제3주일

2026년 3월 8일(제2176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화(5pm~8pm), 토/일(8am~4pm)

E-mail: standrewoak@gmail.com
 홈페이지: WWW.OAKCC.ORG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대건관 1호, 3호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시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수요일 오전 11시 토요일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제1독서 탈출기 17,3-7

화답송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1-2.5-8

복음 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요한 4,5-42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성가]	8시	입당	121	봉헌	342	성체	176	파견	117
	11시	입당	121	봉헌	264	성체	176	파견	117
사순 제3주일	3월 8일(주일)			3월 10일(화)	3월 11일(수)	3월 12일(목)	3월 13일(금)	3월 14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채성일 토마스 김미숙 말가리다			이명란 아네스				사목회	
독서	정일환 프란치스코 정영희 클라라	최윤기 유스티노 오자영 효주아네스			이명련 파트리샤			사목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더	윤춘주 세레나			허홍숙 세실리아			이성연 베로니카	
십자가의 길	꾸리아		알바니 구역					성모회	

공동체 소식

성당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 주세요(초록통 : 음식물, 회색통 : 재활용, 고동통 : 잡쓰레기).

■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회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때입니다. 아집과 욕심과 오만이라는 겹질을 벗어던지고 복음의 초대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미사에 참여합니다.

■ 미사안내

- 김학배 안젤로 신부님 부임하시기 전까지
- 주일 미사: 오전 8시, 11시
집전 사제: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주일미사 생미사와 연미사 봉헌 예물 check payable to: Jesuit Community at JST
- 평일 미사: 수요일/ 토요일 오전 11시
집전 사제: 오대석 바오로 신부님
*수/토 미사 생미사와 연미사 봉헌 예물 check payable to: Dae Seuk Oh
- 화/목 저녁 미사는 없습니다.
- * 주일 헌금 및 교무금 등 각종 봉헌금 Check payable to: St Andrew Kim KPC

■ 3월 요셉 성월

- 매 미사전 기도문은 성요셉 성월기도문(매일미사 책 32쪽)을 바칩니다.

■ 3월 성경 통독

-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1-2,18

■ 3월 14일 토요일 미사 전례: 사목회

■ 사순시기 특별 강론 및 손님 신부님 부활 판공

- 윤여재 비오 신부님(도미니코 수도회, 현 버클리대에서 사목 중)
- 특별 강론 일시: 3/15(일) 교중미사 중
- 손님 신부님 판공: 당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미사 전까지
- * 부활 판공 성사는 매 미사 30분 전에 있습니다.
단, 교중미사 때는 1시간 전에 있습니다.

■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 3월 22일(일), 오후 1시, 성당
- 주례 신부님: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 2차 헌금 안내

- 3/15(일) 해외원조 기금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사순시기 십자가 길 기도

- 매 주 토요일 및 교중 미사 전, 오전 11시 25분
- 3/14(토): 성모회, 3/15(일): 알라메다
- 3/21(토): 성령기도회 3/22(일): 캐스트로벨리

■ 2026년 사순시기 _슬기롭고 영적인 사순시기 보내기

- ① 사순시기 동안 평일미사 참례하기
- ②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하기
- ③ 사순시기 동안 매일 당일 매일미사 책 읽기
- ④ 삼중기도 매일 기도하기(기도표에 체크하기)

※북가주 지역 성당 사순 피정으로 초대합니다.

- 북가주 한인 가톨릭 교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 산호세 성당 가정 안에서 사랑의 예술
- 일시: 3/14(토) 10AM~4PM (간단한 점심제공)
- 주제: 우리 가정이 성화되는 예술을 배워보세요.
- 문의: 교육위원회 정안나(408-202-2646)
- 신청: <https://tinyurl.com/je3jyct7> 또는 위 QR 코드



사순시기 사랑

▶ 샌프란치스코 성당 영성특강

- 일시: 2026년 3월 22일(일) 저녁 7:00 줌(Zoom)
- 주제: "속 시끄러운 내 마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마스 머튼의 영적 평화
- 강사: 박재찬 안셀모 신부님
(성 베네딕토회 왜관 수도원)
- 문의: 신현정 마리스텔라 (415) 940-0503
- 신청: <https://forms.gle/Q8t61HDxmmcbVkuW9>
- * 신청하신 분들께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본당 신부님이 은혜로운 이 시기를 함께 보내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 하면서 권해주신 특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바로가기

■ 모임 및 회의

- 샌리앤드로: 3월 8일 오후 12:30 교육관 106호
- 라스모어: 3월 8일 오후 12:30 교육관 107호
- 오클랜드: 3월 15일 오후 12:30 교육관 106호
- 콘트라코스타 3월 15일 오후 12:30 교육관 107호
- 안나요아킴 3월 21일(토) 11시 미사후 친교실

■ 밥나눔 안내

- 오늘은 밥나눔이 없습니다.
- 다음번 밥나눔: 3월 29일
- 문의: 송성숙 아네스 자매님 (오일공-삼철오-오일사찰)

■ 공동체 기도 지향

조상희마리아, 정화봉로사, 최라파엘, 전옥분크리스티나, 황정숙말피나, 권주선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발바라, 박숙모아네스, 박인규시몬, 김옥자마리아, 임희숙세트리다, 이수인안드레아, 조지현안젤라, 하숙연베로니카, 신재극스테파노, 최혜자벨라데다, 이기석보나벤투라, 임윤택루시아

■ 박정은 소피아 수녀님 영성 특강 (1-6월, 월 1회)

- 수녀님 영성특강은 3월에 없고 4월 12일(일)에 있습니다.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본당 청소(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문의: 이덕용 안드레아(오일공-칠칠삼-사삼팔삼)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파트리치아(3/13)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교회사의 책장을 넘기다 보면, 교황과 주교, 공의회와 신학자의 이름으로 채워진 서술 구조 속에서 여성의 이름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미국 교회사 전문 매체 '크리스찬 히스토리'가 지적했듯, 초기교회에서 여성은 십자가 아래 마지막 제자였고, 빈 무덤의 증인이었으며,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지만 그 역사는 소홀히 다루졌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식 기록 안에서 잘 눈에 띄지 않았지만 공동체와 사상, 신앙 실천의 영역에서 깊은 발자국을 남긴 세 명의 여성을 다시 만나 본다.

성녀 마크리나·빙엔의 힐데가르트·가경자 마들렌 들브렐, 온몸으로 신앙 살아 낸 이들 '재조명' 필요

■ 성녀 마크리나(Macrina the Younger, 327~379) - 교부 시대 이해에 필수적 인물

4세기 카파도키아의 성녀 마크리나는 흔히 대 바실리오와 니사의 그레고리오의 누이로 소개된다. 그러나 니사의 그레고리오가 남긴 「마크리나의 생애」와 「영혼과 부활에 대하여」를 따라가 보면, 단순한 '교부의 자매'가 아니라 형제들의 신앙과 사유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한 인물로 드러난다.

약혼자의 죽음 이후 독신을 선택한 마크리나는 가족 재산을 나누고 노예들을 해방시킨 뒤, 폰투스 이리스 강변에 여성 금욕 공동체를 세웠다. 그가 이끈 공동체에서 해방된 여성 노예들은 하녀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일하는 자매였다. 노예와 주인이 한 공동체 안에서 재산을 공유하며 생활한 이 실천은 당시의 신분 질서를 고려할 때, 초기 그리스도교가 금욕과 공동생활을 어떻게 결합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거론된다.

이 공동체에서는 묵상과 기도, 찬송이 노동과 긴밀히 얽혀 있었으며, 마크리나 자신도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뒤 손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신앙이 경제적 선택과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진 삶이었다. 세속적 명성을 좇던 대 바실리오가 금욕과 공동체 삶으로 방향을 전환한 배경에는 마크리나의 권고와 모범이 있었다. 니사의 그레고리오의 임종을 앞둔 누이를 '승승(ho didaskalos)'이라 부르며, 영혼의 불멸과 부활을 논한 밤샘 대화를 「영혼과 부활에 대하여」에 남겼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여성이 신학적 사유의 주체로 등장하는 드문 문헌으로 평가된다. 그의 삶은 수도 전통의 형성과 교부 신학의 배경에 깊이 관여했다. 주요 기록에 이름을 크게 남기지 않았어도 '교부 시대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기억되는 이유다.

■ 빙엔의 힐데가르트(Hildegard of Binaen, 1098~1179) - 교회 학자로 선포된 네 번째 여성

12세기 독일의 베네딕도회 수녀원장 빙엔의 힐데가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체험한 환시를 바탕으로 창조와 구원, 교회와 역사, 인간과 세계에 관한 독창적인 신학적 상징 언어를 펼쳐 보였다. 신학 저술에 그치지 않고 성가와 음악을 작곡하고 자연과 의학에 관한 저작을 집필했으며, 수도원 담장 너머 교회 현실과 직접 소통했다.

교황과 황제, 주교와 평신도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내 성직자들의 부패를 비판하고 회개와 개혁을 촉구했으며, 라이강과 마이강 일대를 순회하며 설교했다. 중세교회에서 여성이 공식적으로 설교하고 교계 지도자들을 향해 발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언어는 완곡하지 않았다. 당대 성직자들을 향해 "눈먼 이들이 눈먼 이들을 이끈다"고 직격했고, 교황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거침없이 교회의 나태와 부패를 질타했다.

힐데가르트는 자연과 인간, 몸과 영혼, 예술과 전례를 분리하지 않는 통합적 영성을 제시했다. '푸르름(viriditas)'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스며 있음은 하느님의 생명력과 치유를 말하며, 자연과 몸, 악과 식생활을 모두 창조와 구원에 참여하는 자리로 이해했다. 이 시선은 오늘날 생태 영성과 전일적 치유 담론에서도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2012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힐데가르트를 보편교회의 성인으로 선언하고 교회 학자로 선포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 아빌라의 데레사, 리지외의 데레사에 이어 네 번째 여성 교회 학자다. 중세의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도 영적 권위와 카리스마를 지닌 여성 수도자가 신학적 권위를 갖고 활동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의 이름은 이제 교회가 스스로 인정한 신학사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가경자(可敬者) 마들렌 들브렐(Madeleine Delbrêl, 1904~1964) 일상 속 신앙 실천한 평신도 사회복지사

20세기 프랑스의 평신도 마들렌 들브렐은 공산주의 체제 한복판에서 복음을 살았던 가톨릭 신비가이자 사회복지사다. 거리의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며, 평신도 사도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을 무신론자로 규정하며, 지적·예술적 분위기의 파리 청년 문화 안에서 살았다. 그러나 20대 초, 깊은 내적 공허와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 속에서 기도와 복음, 전례를 통해 하느님을 '살아 있는 사랑'으로 체험했다. 이 회심은 그의 삶 전체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신앙을 얻은 뒤 향한 자리는, 믿지 않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도시 변두리였다.

노동자 계급과 공산주의가 강하게 뿌리내린 파리 근교 이브리(Ivry-sur-Seine)로 이주해 친구들과 함께 작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가난한 이들과 이웃이 되어 살았다. 시청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동네에서,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일상을 나누는 방식으로 복음을 증언했다.

'우리는 길 위의 사람들(Nous autres, gens des rues)'이라고 말했듯이, 거리가 곧 그의 생활이자 선교의 공간이었다. 저작 「우리 거리의 작은 사람들」 등은 평범한 일상의 성덕과 세속 한가운데서의 관상을 말하는 고전으로 읽힌다.


들브렐은 금과 강여울을 통해 평신도 사도직과 '길 위의 영성'을 강조하며, 신앙을 성당 안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세상 한가운데서 평신도의 삶 자체가 교회의 현주이 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평신도 사도직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1964년 이브리에서 선종한 뒤, 1993년 시복시성을 위한 조사가 시작됐고,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의 영웅적 덕행을 승인해 '가경자'로 선포했다. 그는 평신도 여성이 도시의 가장 세속적인 자리에서 교회의 얼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로 평가된다. <2026/03/08 가톨릭 신우>

여성의 날에 읽기 좋은 책,
여성영성 수업

예술과 인문학의 시선으로 삶과 영성을 탐구해온 영성학자 박정은 소피아 수녀님의 <사려 깊은 수다> 확대 개정판

"지금, 당신의 삶을 다시 읽어야 할 시간입니다."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주일학교(학생)	총
미사참례인원	40	166	9(5)	215

주일미사			2차 헌금		교무금	Bishop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8시	교중미사	주일학교	8시	교중미사							
[교무금] 김영자(12/25), 이경섭(2-4), 이명란(3), 조우송(3), 이정연(3), 김영길(3), 윤성일(1-12/25), 이명국(3), 김상윤(1-3), 박호영(3), 조익현(3), 한치용(2-3), 김원조(1-3), 최윤기(3), 조덕행(3), 이수인(2), 조용숙(3), 김복희(3-4), 임희숙(1-3), 허수원(1-3)						최윤기		이명란 최윤기		조우송 이명란 정홍철 신부님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3/8(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3/11(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연	박복임 마리아	이명란 아네스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연	염명선 말가리다	이명란 아네스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채 헬레나	가족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티		생	조관식 베네딕토	김엘리사벳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연	김준철 어거스틴	김 켈뚜르다				
	연	김마르코	가족				
	연	김재성 제이슨	김지호 알렉스				
	연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가족	3/14(토)	연	주봉진 요셉	윤세레나
	연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RON LWIN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고영남 안드레아		연	주봉진 요셉	이에스티
	연	박정희 올리엠타	김원덕 시몬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천성배	천다니엘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김청수 바오로	김용찬 프란치스코		연	장민우 베난시오	송아네스
	연	유낙양 베로니카	가족		연	한동설 안젤로	가족
	연	윤 Dana 요한	가족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이건용 요셉	임유지 비비안나		연	이숙강 엘리사벳	가족
	연	부모님	권마가렛		연	이용 요셉	이소지 마리아
	연	장민우 베난시오	이정연 골롬바		생	김현숙 수산나	김엘리사벳
	연	장민우 베난시오	권마가렛		생	최춘수 데레사 가정	윤세레나
	연	장민우 베난시오	김문환 베드로		생	주정희 마리아	윤세레나
	연	이옥만	김케넷 가족		생	안기민 사도요한 신부님	익명
	연	박인식 베드로	박용숙 카타리나		생	안기민 사도요한 신부님	이에스티
	연	오 유스티노	강실비아		생	안기민 사도요한 신부님	주정희 마리아
3/8(일)	생	전데레사/전알렉스 가정	천다니엘				
	생	권보미 보나	권마가렛				
	생	송재순 스킨라 가정	권마가렛				
	생	권순호 데이빗	권마가렛				
	생	김영선 안젤라 가정	김엘리사벳				
	생	황정숙 말찌나	김엘리사벳				
	생	이영기 마태오	김제랄드				
	생	실버 구역원들	채토마스				

Samuel Kim
건강 보험 전문 메디케어/메디칼
처방약 보조, ACA
무료상담 (510)418-0243
samkim515@gmail.com
CA Lic. #4474816

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

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

폴킴 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847-5837
DRE #01851957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